

AUTHOR 양금희

TITLE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

IN 성경과 신학

vol.24 (October, 1998): 361-438

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 세대에 신자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 없이 열게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이 현상만 배제한다면 다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을 하여 심령에 변화를 체험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들의 이웃과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신자들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실패로 든 대표적인 회개 운동들에서 발생한 신앙적 현상들과 결과만 기대할 수 있다면 현대 교회는 “현대 교회 마이너스 성장 실태” 판과 “21세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에서 보여주는 현대 교회를 향한 대내외적 공격(교회경신의 역기능적 작용)을 소극적 자세로 세속화를 막는데만 급급하는 수세적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에 우리는 현대 교회의 세속화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현대교회를 향한 대내외적 공격을 충분히 막아내고 지지시키며 나아가서 신자들은 그들의 이웃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복음으로 그들의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께 하나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와 국가로 변화시키고 개인, 이웃과 사회 및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완수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

양금희

(강신대)

I. 들어가기는 말

II. 루터의 교회론과 교회교육

1. 루터의 교회론

- 1) 말씀의 교회
- 2) 참교회와 거짓교회
- 3) 교회의 직책
 - (1) 만민제사장
 - (2) 영적 직분
- 4)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2. 루터의 교회론과 교육

- 1) 루터의 말씀이해와 교육
- 2) 루터의 만민제사장 개념과 교육
- 3) 루터의 교회교육의 실체와 그의 「소교리문답서」

III. 칼빈의 교회론과 교회교육

1. 칼빈의 교회론

- 1) 교회의 필요성
- 2)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 3) 교회의 표시(notae ecclesiae)
- 4) 교회의 직책
- 5) 치리(disciplina)

2. 칼빈의 교회론과 교육

- 1) 칼빈의 교회교육의 실제
- 2) 칼빈의 교회이해에 나타난 '교육목회'개념

IV.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

1. 교회에서의 교육의 위치
2.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 구조에 미치는 신학적인 입장의 비교
3. 루터와 칼빈의 '교육'이해가 그들의 교회교육 구조에 미친 영향

1. 들어가기는 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개신교의 두 기둥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교회와 신학을 개척한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칼빈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신교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완성시킨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의 교회와 신학이 크게 보아 이 두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 맞다면, 이것은 개신교의 기독교교육에도 해당되는 말일 것이고, 따라서 개신교의 기독교교육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개혁자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본교를 기독교교육의 핵심적인 장인 '교회'의 교육을 특별히 이 두 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갖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개혁자들의 사교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해와 교회에서의 교육의 위치와 역할들을 재구성하는 것은 개신교의 교회교육에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의 기독교교육학계에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교육' 개념을 폭넓게 소개하는 글들은 여러편 발표되었지만, 그 두 개혁자의 '교회교육'개념과 구조들을 고찰하는 글은 발표된바가 없었고, 이들을 구조적으로 비교하는 글도 소개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특별히 이 두 개혁자의 '교회교육' 개념 및 구조를 그들의 교회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해보고, 그들의 사교에 나타나는 '교회교육'의 구조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신학적인 교회론에 교육이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점유하는지를 해석해 본 것이며, 이에 연이어 그들이 실제로 제시하고 실천하였던 교회교육의 실제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교육의 실제와 그들의 교회론 간에 존재하는 가능한 연속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두 사람의 교회교육 모델 간의 공통점과 상이성이 비교될 것이고, 이 둘 간에 존재하는 상이성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특별히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과, 교육 이해상의 차이를 통하여 밝히도록 시도할 것이다.

II. 루터의 교회론과 교회교육

1. 루터의 교회론

1) 말씀의 교회

루터의 '교회'에 관한 생각은 그의 종교개혁적인 활동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루터가 「시편강의(Psalmenvorlesung, 1513-1515)」를 썼을 때에 교회론에 관한 그의 관심은 "말씀의 들음"에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종교개혁적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는 카톨릭의 교회개념과 관련하여 '교회의

권위(Autorität der Kirche)에 대해서, 그리고 '만인제사장설'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개신교회를 확고히 확립한 후에는 직분론(Amtslehre)이나 교회법(Kirchenordnung)들에 관심을 기쳤고, 직분론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만인제사장설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직분이해를 전개하였다면, 말기로 갈수록 목사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의 교회론을 일반회해서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들라면, 그것은 '말씀(Wort)'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교회안에는 말씀이 최우선에 서며, 그래서 그에게서 교회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의 교회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에서 그는 교회를 '기록한 사람들의 모임(communio sanctorum)'이라고²⁾ 하였다. 이를 풀이하여 그는 교회란 "기독교적(christlich)이고 기록한(heilig) 백성들의 모임이며,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³⁾라고 하였고, 또한 교회란 "기독교인이며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⁴⁾고도 하였다.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한 그의 표현은 신앙고백의 '기록한 공회(heilige christliche Kirche)'와 직결되는 개념인데, 이 기록함을 그는 바로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성도가 기록한 것은 오로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들을 매일 기록하게 하는 성령 때문인데,⁵⁾ 이 성

1)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Göttingen, 1995, 296.

2) M. Luther,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 WA 50, 624.

15-20.

3) 같은 글, 624, 29.

4) 같은 글, 624, 29.

5) 같은 글, 624, 30.

령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회의 기록함을 말씀과 말씀을 또한 성령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말씀은 기독교인이 기록한 성도로 불리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또한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기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함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성령 스스로가 말씀을 인도하며, 또한 교회에 기쁨을 붓고 교회를 기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의 「슈말칼트문서(Schmalckaldischen Artikeln, 1537)」의 신앙고백 해석 중 "기록한 공회(heilige christliche Kirche)를 믿시오며"의 해석에서도 루터는 "여기의 기록함이란, 성가대나 예식, 혹은 목사의 기운과 같은 것으로부터이거나, 이를 통하여 성격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⁷⁾ 이처럼 루터에게서 성도의 기록성은 전적으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복음의 피조물(Geschöpf des Evangeliums)'이라고 하였으며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표시(notae ecclesiae)"를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전이 말씀대로 집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⁹⁾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동아니고, 교인들 스스로도 아니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말씀대로 집전되는 것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하여 루터의 교회이해에

6) 같은 글, 629, 2.

7) BSLK 460, 2-5

8) M. Luther, "Resolutions Lutheranae super propositionibus suis Lipsiae disputatis 1519", WA 2, 430, 6f

9) M. Luther, "Von dem Pappstum zu Rom...1520", WA 6, 301, 3-5.

는 궁극적으로 말씀의 절대적인 우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이야말로 그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근거인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Autorität)를 말씀에서 찾았다. 그는 카톨릭적인 입장에 반하여 교회의 권위를 교황이나 공의회(Konviliem)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루터는 말씀을 교회 위에 놓았다.¹⁰⁾ 교회는 철저히 말씀 아래에 존재하는 기관이고, 따라서 교회가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사명을 잃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도 잃게 되는 것이다.

2) 참교회와 거짓교회

말씀이 절대적인 우위성을 갖는 루터의 교회론은 그의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한 이해에서도 확인된다. 루터는 카톨릭적인 교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참교회란 무엇인지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루터는 먼저 예수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황이 머리가 되는 "교황의 교회"를 구분하면서, 참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¹⁾ 이와 더불어 루터는 교회를 하나의 사상적인 기관(Institution)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였다. 그에게서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한몸이 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다.

10) B. Lohse, 앞의 책, 205쪽.

11) 루터는 이 입장을 특별히 그의 글, "Von dem Papsstum zu Rom wider den hochberühmten Romanisten zu Leipzig" (WA 6, 277-324)

또한 루터는 참교회는 꼭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인 아님을 시사하였다. 그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로 구분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두 참교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교회는 참믿음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 있다고 하였다. 성례가 집전되고 세례가 행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의 뜻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또 한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참교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참교회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데, 가시적인 교회 안에 비가시적인 참교회가 함께 섞여 있어서 종말의 때가 지 간다고 보았다.¹²⁾ 참교회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거짓교회와 적그리스도적인 것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할 과제를 갖는다. 참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그 자체는 아니지만, 또한 가시적인 교회와 무관하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라는 태두리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에게 참교회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 않되 또한 동시에 보이지 않기도 하다. 그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참교회는 육(형체)으로 드러나고 그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는 아니다. 참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은 아니다."¹³⁾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터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을 '말씀'에서 찾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참교회는 '참 사도적인 교회(recht Aposteln Kirche)'라고 하였는데, 이 참 사도적인 교회의 척도는 '말씀(Schrift)'에 있다고 하였다. 참 사도적 교회는 말

12) Ulrich Kühn, Kirche, Gütersloh, 1990, 27쪽 이하.

13) Luther, WA 39 II, 149, 22.

씀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바른개 선포되고 성례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집전되는 곳이다. 루터는 자신의 교회를 변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적인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Lehre)을 갖고 있으며, 성례전을 예수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이처럼 루터는 참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에서 찾고 있다. 그의 참교회 개념은 어느 특정의 교단이나 교회를 지칭하기 보다는 어느 교회도 공극적인 목표로서 삼아야 할 교회상, 즉 참 사도적인 교회로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책

B. 로체에 의하면 루터의 직분론(Amtslehre)은 그의 다른 많은 신학적 주제들처럼 그의 종교개혁운동과 교회 활동 시기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바가 달라졌다.¹⁵⁾ 그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던 때인 1517년에서 1520년 어간에 그는 "만인제사장설"의 개념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편으로는 로마와,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의 종교개혁자들과 싸워야 했던 1520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일정한 직분(gesordnetes Amt)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루터가 특별히 광신도(Schwärmer)들과 싸워야 했던 1524년부터 1529년 어간에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목사라는 영적 직분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530년 이후 즉, 독일개신교 노회(Landeskirche)를 구성한 후에

는 성직이라는 직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분명해 졌으며 개신교의 감독(Bischof)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직분론이 포괄적으로 정리된 것은 그의 활동 후반기에 이르러서이다.¹⁶⁾

(1) 만인제사장

루터의 직분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만인제사장설'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초기부터 '만인제사장'이라는 참으로 획기적인 직분구조의 페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는 구교의 교권주의를 비판하면서 평신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평신도와 제사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인 내부의 계층구조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로마의 교권주의를 자백(Mauer)에 비유하였는데, 로마는 세가지의 장벽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 첫 번째 장벽은 세상의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 영의 세력은 세상의 세력보다 높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맞서는 것이다. 두 번째 장벽은 그들을 성경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려 하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고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장벽은 그들을 공의회(konzi)를 통하여 정죄하려 할 때,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교황 하나뿐이라고 맞서는 것이다.¹⁷⁾

이에 대하여 루터는 모든 기독교인은 그의 '세례'와 더불어서

16) 그는 특별히 "V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과 "Wider Hans Worst 1541"에서 그의 직분론을 전개하였다.

17) Luther,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 1520", WA 23-29.

14) WA TR 4Nr. 4172 179, 9-11

15) B. Lohse, *Luthers Theologie*, Göttingen, 1995, 307쪽.

기독교인 됨으로서 이미 제사장의 직을 받았다는 만인 제사장설을 제시하였다. "모든 기독교인은 진정으로 제사장이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¹⁸⁾

물론 그가 세례라는 외적인 형식만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믿음에 있는 자이고, 이 내적인 믿음이 세례와 나란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만인제사장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만이 제사장직일 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은 목사이고 모든 여자도 목사이다. 늙었던지 젊었던지, 종이냐 주인이나, 여자나 여종이나, 배운 자나 무식한자나...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그들의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는한."¹⁹⁾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을 통해 중재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의 구원된 상태는 특별히 어떤 제사장의 중재를 필요치 않는 상태인데, 모든 기독교인은 세례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도 자유로운 통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이 갖는 또다른 메시지는 교회의 영적인 직분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직분으로서 제사장과 평교인 사이의 어떤 계층적인 서열이나 존재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8) 같은 글, WA 6, 407, 10-5

19) Luther, "Sermon von dem Neuen Testament", WA 6, 370, 24-28.

(2) 영적인 직분(das geistliche Amt)

루터는 만인제사장 개념과 나란히 교회의 공식적인 기능을 위하여 공적인 직분(Amt), 즉 영적인 직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그의 이 영적인 직분개념도 그의 '만인제사장' 개념과의 연계성에서 보아야 한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은 만인제사장의 바탕에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공적인 직분을 위하여 선택되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사제직이란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성직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카톨릭적인 사제직 개념과는 구별되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사제의 직은 평신도와는 구별되는 성직이라는 입장에서 카톨릭에서는 사제의 직을 위임받는 '사제서품(Ordination)'은 세례나 성찬과 같이 하나의 성례(sacrament)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터는 모든 기독교인은 원칙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안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인 성직자가 선택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루터는 공적인 사제직이란 만인제사장의 바탕에서 누구나 선택되어서 수행할 수 있는 직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게서 성직은 하나의 기능직, 특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회에 의하여 선택된 직분이고, 그래서 공적인 성직은 무엇보다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봉사(Dienst)'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위 목사라는 직분은 봉사의 직이다. 그는 우리에게 의하여 선택되어지고, 따라서 우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자인 것이다. 따라서牧사는 봉사자(Dienst)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²⁰⁾ 이러한 영적인 직분에 관한 입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루터는

20) M. Luther, "Von der babylonischen Gefangenschaft der Kirche 1520", WA 6, 560.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에서 영적 직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그의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교회는 비숍(감독)과 목사(Pfarrer) 혹은 설교가(prediger)가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 성찬과 고해사의 죄사함을 공식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를 교회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²¹⁾ 이 구절이 시사해 주는 것은 먼저 루터는 교회의 직분의 필요성을 교회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능’으로부터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 기능이란 무엇보다 ‘공적인 말씀선포’와 ‘성례의 집전’이다. 그리고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영적 직분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 루터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복음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영적인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²²⁾ 이에 덧붙여 그는 직분의 필요성을 교회의 ‘질서’라는 차원에서도 보고 있다.

“모든 교인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명령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따라야지, 만약 아무나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한사람만 명령하게 해야하고, 한 사람만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주고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응하고 이를 즐거야 할 것이다.”²³⁾

21) Luther,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 WA 50, 632, 35 이하.

22)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WA 50, 623, 35-633; WA 51, 481, 7-16.

23) 앞의 글, WA 50, 632, 36-633, 11.

루터가 제시하는 영적 직분의 형태는 비숍(감독)과 목사 혹은 설교가이다. 그는 목사와 설교가를 구별하여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목사 혹은 설교가로 그 명칭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목사 혹은 설교가의 기능은 그에 따르면 ‘공적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다. 루터는 다른 곳에서 목사의 기능을 ‘말씀선포’와 ‘성례, 성찬, 그리고 열쇠(Schlüssel)²⁴⁾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영적인 직분의 핵심적인 기능은 그의 교회이해와 연결시켜 볼 때, ‘공적인 말씀의 선포로 집약된다.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란 결국 성례를 말씀에 입각하여 집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게서 영적직분, 즉, 목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감독의 직이란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루터는 이에 관하여 아주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교황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독의 직을 거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성서가 감독의 직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담전 3장 2절과, 디도서 1장 7절과 9절을 들면서, “감독은 거룩하여야 하며, 말씀을 설교하고, 세례를 주며, 열쇠의 직을 감당하고, 영생을 위하여 영혼들을 돕고 위로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⁵⁾ 감독이 갖는 기능을 한가지 더 갖고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천주교의 교황이 갖는 것과 같은 법적인 영향력의 행시를 감독에게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감독과 목사간의 본질적인 차이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둘은 기능적이고 직분상의 차이일 뿐, 안수받은 목사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24) 여기서 열쇠란 고해사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개전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 신자들에게 경고하며, 또 더 나아가 교회에 서부터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5) WA 53, 253.

는 것이다.

루터의 직분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영적인 직분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도 말했던 대로 영적인 직분은 교회 안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직분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직분자가 그 기능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교회는 그를 직분에서 해임시킬 수도 있다.

4) 교회의 공극적인 목적

루터는 그의 교회론에 관한 주적인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과 "Wider Hans Worst 1541"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는 많은 지면을 할애 하지만, 교회가 공극적으로 왜 존립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그의 두 왕국설(Zwischenlehre)에 대한 언급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잘 아는데로 루터는 '세상의 나라(weltliches Regiment)'와 '영의 나라(geistliches Regiment)'로 '국가'와 '교회'를 대비시키고 있다. 세상나라인 국가는 국가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악을 근절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영의 나라인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고 경건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²⁶⁾ 세상나라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치자(Obrigkeit)가 있으며 통치자가 검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면, 영적인 나라인 교회는 인간의 영적인 구원을 공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면서 이 목적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루터가 교회를 '말씀의 교회'로 보고 성직인 목사의 핵심적인 과제를 말씀의 선포로 보는 것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교회의 공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위에 고찰한 루터의 교회론을 요약해 보자.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공동체(communio sanctorum)"라고 정의 하였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의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나 기관, 혹은 카톨릭에서처럼 교황이 머리가 되는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한 몸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관이며, 교회의 공극적인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핵심적인 과제는 말씀의 선포로 집약되고, 교회의 영적인 직분인 목사를 그는 설교가와 동역어로 사용할 만큼 말씀 선포에 목사의 핵심적인 과제가 놓여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하여 존재하는 참교회를 루터는 거짓 교회로부터 분리하면서, 참교회는 참민음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참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즉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전이라는 표징을 갖는 거시적인 교회라는 틀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교회는 종말의 때까지 함께 공존하는 관계라고 하였다. 참교회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거짓교회와 적그리스도적인 것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할 과제를 갖는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공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다. 영의 나라인 교회는 인간을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 즉 구원하는 일이며, 따라서 그에게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26) WA 11, 252, 12-14; "Eine Predigt, dab man Kinder zur Schule halten solle, 1530", WA 30, II, 517-588.

교회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입장을 읽을 수 있다.

2. 루터의 교회론과 교육

교회론에 관한 루터의 기본 입장 안에서 교육의 위치를 규명해 보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글에서 교회를 '교육'이라는 개념과 서로 본질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루터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고 그의 교회의 모든 기능과 표정은 말씀의 선포로 집약된다. 이렇게 교회를 말씀의 교회로 보았던 루터에게 말씀에 대한 교육도 그의 교회개념에서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추측은 그러나 그의 교회론에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벽에 부딪치게 된다. 루터의 표현을 살펴보면 루터는 교회의 과제를 말씀의 선포라고 하였지 말씀의 가르침이나 말씀의 교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목사의 핵심적인 과제도 말씀의 "선포(Verkündigung)"로 집약된다.

참고로 멜랑히톤(Melanchthon)의 경우를 보면, 그의 교회론에서는 '가르침(Lehre)'이 교회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²⁷⁾ 멜랑히톤에게서는 "복음의 선포(praedicatorio evangelii)"와 나란히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복음의 가르침(doctrina de evangelio)"이라는 개념이 나란히 등장한다.²⁸⁾ 그는 복음을 선포와 교육이라고 하는 두차원 모두와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

27) Ulrich Kühn, 앞의 책, 43쪽 이하.

28) K. Haendler, Wort und Glaube bei Melanchthon, Göttersloh, 1988, 150쪽.

서 그는 말씀의 교회라는 개신교의 교회개념 안에 "가르치는 교회(lehrende Kirche)"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포괄하여 보았다. 그의 생각, 즉 목사의 기능 안에 또 가르치는 직분(Lehrendes Amt)이 포괄됨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루터의 교회론에서는 '가르침'이나 '교육'이라는 개념이 멜랑히톤이나, 뒤에 살펴볼 칼빈의 교회개념에서처럼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왜 그가 말씀의 '교육'보다는 '선포'에 교회의 주 과제가 있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그의 교회론에서 교육을 중시하지 않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그의 교회론적인 주지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는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는 그의 교회론에 관한 글에서 교회에 교육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특별한 해명을 주고 있지 않다. 그만큼 그는 교육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에게서 이러한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그의 다른 저술들과, 특히 교육관련적인 저술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나감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하여 그의 교회론에 왜 교육이 중시되고 있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개념이 교육과 관련될 수 없는지를 물어들이 감으로써 그의 교회와 교육의 관계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1) 루터의 말씀이해와 교육

루터가 교회를 말씀의 교회라고 보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로서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은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루터의 이해를 좀 더 깊이 고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 같다. 루터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만드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를 조명하고 깨우치시는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말

뜻은 말씀 스스로가 해석하고 밝혀주며 해명해 준다고 하였다.²⁹⁾ 때문에 말씀의 해석을 위하여 어느 특정한 매체, 특히 교황의 교권적인 해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말씀은 성령이 친히 계시하고 조명하기 때문에 어떤 중개자를 통한 해석 없이 말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고 하였다. "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그래서 루터는 말씀의 신포라고 하였지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해석해준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성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서는 모든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³⁰⁾ 예를 들어 루터와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을 벌인 dp라스무스는 성서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분명해지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간의 약한 이성의 능력은 미칠 수 없는 깊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성서는 분명하고 명료하여 그 내용을 초등학교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¹⁾

아거스틴 이후 중세적인 전통에는 말씀을 특별히 '외적인 말씀(äußeres Wort)'과 '내적인 말씀(inneres Wort)'으로 구별하면서, 외적인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Buchstaben)이고, 내적인 말씀은 영적인 의미(Geist)라고 보는 입장이 강했다. 외적인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로서 언어가 매개하는 객관적인 의미라면, 내적인 말씀이란 문자는 그 뜻에 담긴 내용으로서 이의 영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다. 루터는

특별히 이러한 이분법에 집착하면서, 영적인 알레고리 해석에 탐닉했던 당신의 광신도(Schwärmer)들과의 논쟁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그 둘을 하나로 보려고 하였다. 그의 성찬이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잔에 실재한다(realitätsent)는 입장에 섰던 것 처럼, 그는 말씀 안에 '진리'가 전적으로 현재한다고 하였다.³²⁾ 그는 인간의 말 안에 신적인 영이 함께 실재한다고 함으로써 문자와 영을 함께 보려고 하였다. 그는 외적인 문자와 내적인 영을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서로 떼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언어적인 의미는 소홀히 여기고 영적인 의미만 중시하는 열광주의자들의 입장도 비판하였고, 언어적인 이해에만 머물러서 성령이 조명하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경계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서가 갖는 '명료함(Klarheit)'은 두 측면의 명료함이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데, '외적인 명료함'과 '내적인 명료함'이 그것이라고 하였다.³³⁾ 외적인 명료함을 위하여서는 언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내적인 명료함을 위하여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위한 선행조건이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를 그의 교육개념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내적인 명료함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지기 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어 깨우침을 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 말씀을 교육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터는 말씀의 외적인 명료성, 즉 언어적인 이해를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시키고 있다. 루터는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

29) M. Luther, "Asertio omnium articulorum...", 1520", WA 7, 97, 23f.

30) M. Luther, "De servo arbitrio", WA 18, 606, 24-31.

31) 같은 글, WA 18, 606, 37-39.

32) P. Meinhold, Luthers Sprachphilosophie, 1958, 56쪽.

33) M. Luther, 같은 글, WA 18, 609, 5-9

하여서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위한 언어 교육의 필수불가결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언어란 목회자가 될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언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교회로서의 그의 교회이해에는 언어의 교육과 내적으로 연결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Schulpredigt"에서 영적인 나라 곧 교회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 한데 이것은 무엇보다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말씀의 교회로서의 그의 교회이해는 교육과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루터는 말씀의 외적-언어적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말씀의 내적 명료함과 깨우침은 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는데 있어서 교육의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과 교육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도 교회가 교육과 서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그의 만인제사장 개념과 더불어 기독교인됨이란 원칙적으로 제사장직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기독교교육적으로 내포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듣고 이를 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수준의 성숙하고 독자적인 신앙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나 남자

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성숙하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며, 제사장의 수준을 갖춘 신앙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됨이란 일정한 정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은 기독교인됨과 교육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일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일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한 사실, 그리고 이를 매개하기 위하여 '요리문답서(Katechismus)'를 집필한 사실들은 그의 만인제사장설과 내적인 연계성 안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3) 루터의 교회교육 카테고리

그런데 막상 루터는 그러한 교회의 교육의 과정을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실행되기를 기대했다가 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앞서 말했던 말씀의 해석을 위한 언어교육도, 그리고 제사장직인 직분을 위한 교육도,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그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그의 많은 문헌들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교육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 가정을 통한 교회교육

그는 교육(Ziehen)이란 단어를 라틴어 '에두카치오educatio'란

단어와 구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개념을 그는 성장세대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이끌어주는 모든 도움이라고 보았다.³⁴⁾ 이 교육적인 돌봄이란 물론 루터에게 있어서 단순히 세상의 시민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 즉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 교육적인 돌봄이 일어나야 할 자리를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정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그에게 교육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소관사항이었다. 루터는 그의 두왕국설 외에도 중세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지는 "삼 직위론 *Drei-Stände-Lehre*"을 전개하였다. '슈탄트란' 위치, 혹은 직위를 가르치는 독일어의 단어로서, 세상에는 세가지의 직위가 있고 이 세 직위는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다스리는(*regieren*) 직분이라고 하였는데, 목사(*Pfarrerstand*)와 가정(*Hausstand*), 그리고 통치자(*obrigkeitstand*)가 그것이라는 것이다.牧사는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나라인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자는 점의 도움으로 세상나라를 다스리듯이, 가정의 가정은 다스려야한다는 것이다.³⁵⁾ 그는 이 다스린다는 의미 안에는 자식들을 교육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이 '삼 직위론'에 근거하여 보아도 루터의 사고 안에서 교육의 의무는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있고, 교육의 중요 장은 가정이다. 그런데 루터의 가정을 아주 특별한 단위로 보았는데, 교회가 영의 나라이고, 국가를 세상의 나라라고 본다면 가정은 이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하는 나라이고, 따라서 부모는 자

34) I Ashelm, *Glaube und Erziehung bei Luther*, Heidelberg, 1961, 44쪽.

35) M. Luther, "Vom eheichen Leben 1522", WA 10m 2, 301, 25-27.

식에 세상이 영적인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목사와 통치자의 양자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⁶⁾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교육적인 도움을 줄뿐 만 아니라, 자녀를 기독교적으로도 양육해야할 책임을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세상의 통치자의 겸으로 세상나라를 다스리듯 자식을 나쁜영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회초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회초리는 통치자의 겸과 같은 의미의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는 제사장적인 직분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며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에게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stellvertretender Gott*)'가 된다고 하였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대인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의 만인 제사장설은 아마도 가정에게 가장 심도있게 적용이 될 것이다. 그는 부모의 이러한 직이 교회의 성직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직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루터는 가정이 교회와는 무관한 하나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그곳도 '영의 나라'의 일부로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한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인 것이다. 루터의 교회론에서 교육이 그다지 중점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6) M. Luther, "Predigt 1528", WA 27, 7, 7.

(2) 학교를 통한 교회교육

또한 루터는 가정에 이어 그 다음으로 교육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을 '학교'라고 보았다. 지식의 교육을 책임받고 있는 부모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누군가 이 책임을 대신하여야 하는데, 루터는 이것을 통치자(Obrigkeit)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통치자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 안의 모든 성장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개념도 루터에게는 그의 가정교육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삶의 준비를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교육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그가 귀족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성장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썼을 때에도 학교란 '세상나라(weltliches Regiment)'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geistliches Regiment)'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³⁷⁾ 오히려 그의 글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는 먼저 영의 나라를 위한 학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세상의 나라를 언급할 만큼, 학교가 영의 나라, 즉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영의 나라, 즉 교회를 위하여서는 '교회'가 교육을 담당하고, 세상나라를 위하여서는 '학교'가 그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고, 이 두 나라 모두를 위하여 '학교'가 교육적인 의무와 파제를 갖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의 '말씀의 교회'를 위하여 그토록 중요한 언어 교육도 그는 학교가 담당할 것을 구상하였다. 다시말해서 그는 학교가 교회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보다는 교회와 밀접한 관련 안에서 기독교

37) M. Luther, "An die Ratsherren aller Städte deutsches Lands daß sie christliche Schulen aufrichten und halten solle" WA 15, 9ff.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교회론에 관한 주저인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에서 루터는 교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에 덧붙여 학교에 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학교는 교회와 아주 가깝게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 목사를 길러내어 죽어있는 도시에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집이 또한 학교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학교의 혜택을 보게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는 어린이를 목사로 만들고, 목사는 다시금 교회의 하나님님의 자녀들(그들이 시민이든지, 영주이든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³⁸⁾

이처럼 루터는 교회와 학교를 내적으로 서로 깊이 연관된 기관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학교개념은 '기독교학교(christliche Schule)'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학교가 교회의 성직자 양성기관으로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었던 중세와는 달리 국가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육이해에 대한 그의 지평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직자의 전유물로서의 중세적인 학교이해에서 벗어나 교육의 대상을 국가에 속하는 모든 성장세대로 확대하면서 학교를 교회보다는 국가에 속하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루터는 공교육 개념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루터의 사교에서 학교는 그러나 외적이고 형식적으로는 국가에 소속되는 기관이었지만, 내적이고 내용적으로는 교회에 속하는 기관이었다. 예를들어 종교개혁 당시 학교의 모든 제도나 원칙들, 학교

38) M. Luther,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 WA 50, 652, 1이하.

법, 교육의 내용, 교재, 시간표작성 등의 제반 결정사항은 교회의 소관사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인 모든 결정과 학교의 '감독(Schulaufsicht)'권도 교회에게 있었다. 목사들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Schulvisitation)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사를 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루터는 교사의 직을 '영적인 직분 (geistliches Amt)'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³⁹⁾ 그것은 무엇보다 교사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영적인 직분인 목사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학교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학교에서 교사의 직을 담당하던 사람은 대부분 목사였고, 루터도 목사가 규칙적으로 자신의 구역에 속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루터의 교회교육개념은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개념이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을 가정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행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루터의 교회교육의 카테고리는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

4) 루터의 교회교육의 실제와 그의 「소교리문답서」

39) M. Luteher, "An die Ratsherren aller Städte...", WA 15, 47,

13-15; "Eine Predigt, daß man die Kinder zur Schule halten solle, WA 2, 528, 8-13; 533, 1-7; 549, 12-15.

앞의 고찰들을 통하여 우리는 루터의 교회교육의 개념을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한정시켜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제 그가 구상하고 실행하였던 좁은 의미의 교회교육, 즉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의 실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루터의 교회론에 터하여 보면 교회 교육의 실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교회론적 주저에서 그의 교회교육의 실제를 추적해 들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교리문답서」에 관한 글들에서 우리는 그의 교회교육의 실제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들과 접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그의 교회교육의 실제들에 대한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루터의 소교리문답서는 우리가 잘 아는대로 독일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교회교육(Volkskatechumenat)을 위한 교재였다. 루터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작은 책자로 펴내어서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읽히고 가르쳐지며, 실행되어야 할 바였다.⁴⁰⁾

그가 소교리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대상은 누구보다 어린이었다.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그는 무엇보다도 세계와 성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루터 당시에는 유아세례가 거의 유일한 세례형태일 정도로 유아세례가 관습으로 굳게 자리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세례는 우리가 앞서도 살폈듯이 기독교인이 되는 표시이며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세례된 교육적인 동반이 따라야 하는 교회의 종대사인 것이다. 그러

40) M. Luthher, "Vorrede zur Deutschen Messe und Ordnung des Gottesdienstes, 1526", WA 19, 72-80.

나 루터 당시의 유아세례 관습으로 인하여 세례를 위한 교육은 거의 불가능했다. 갓 태어난 유아에게 교육을 시키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고대교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던 세례교육(Katechumenat)은 중세 전반을 거쳐 거의 전멸 상태였고, 교육은 단지 대부모(Paten)와 부모의 일로 머무러 졌으나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야 옳을 정도로 비교육의 풍토가 심했었다.

루터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서 어린이가 유아세례 이후 성찬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될 때 까지 추후적인 세례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어린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참여하게 될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성찬에의 올바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가 참여하게 될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성찬에의 올바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그는 어린이 카테쿠메넛(Kinderkatechumenat)을 제안하였고, 유아세례자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그의 소교리문답은 이 어린이 카테쿠메넛에 쓰이게 될 교재로서 루터가 구상한 것이다.⁴¹⁾ 그런데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관문이 '입교(Konfirmation)'이었으니, 그의 소교리문답은 어린이 카테쿠메넛을 위한 교재이면서 아울러 입교 준비교육의 교재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소교리문답서 구상을 통해서 루터의 교회에 세례받은 어린이를 위한 '추후적인 세례교육(nachgetragene Taufunterricht)' 즉 '어린이 카테쿠메넛(Kinderkatechumenat)'과 '입

교준비교육(Konfirmanden unterricht)'의 제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루터의 교회에는 또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제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 있다.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교회에서 드러질 예배의 형식을 구상하고 제안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글 중의 하나가 「독일이 미사(die Deutsche Messe)」이다. 이 독일어 미사라는 글은 기존의 카톨릭 미사가 주로 라틴어로 드러지고 있고, 또한 루터의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라틴어 미사가 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루터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junges Volk)과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는 소위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백성(einfältiges Volk)'들을 위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가 드러져야함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예배형식이다.⁴²⁾ 그는 독일어 미사의 서문에서 독일어 예배는 미성년 자들과, 미숙한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인 만큼, 설교도 교육적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교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리문답설교를 제안하며, 또한 형식도 설교중 문고 대답하는 교리문답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그들이 듣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바로 이해하였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⁴³⁾ 이것이 바로 그에 의하여 제안되고 독일의 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확고한 형식(Gattung)이 되어 버린 소위 "카테키즘 설교(Katechismuspredigt)"이다.

루터는 우리가 앞서 살핀대로 '말씀'은 외적인 언어적 해석과

41) H. J. Frazas, *Katechismustradition, Luthers kleiner Katechismus*

in Kirche und Schule, Göttingen, 1971, 18쪽 이하.

72-80.

42) M. Luther, "Vorrede zur Deutschen Messe, 1526", WA 19,

43) 같은 글.

내적인 성령의 조명하심이 서로 아우러져서 바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그는 외적인 언어를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필요하나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고, 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교육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선행조건이라고 함으로써 말씀을 위한 특별한 위치의 사람(예를 들어 교황)으로부터 특별한 해석이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의 교회론에서 말씀선포, 즉 설교가 중요하고, 교육은 강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청소년과 미숙한 신앙인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설교, 즉 교리 문답식 설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간파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루터의 교리문답이 교회만을 위하여 쓰여진 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소교리문답 서문에서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에게 읽도록 권면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가장들이 이것을 읽고 그의 집안에 속하는 모든 자녀와 권속들에게 매일 읽고 가르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목사들이 읽도록 권면하였는데, 목사 스스로 이를 매일 읽고 그 뜻을 새기며, 그의 모든 회중에게 매일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그의 교리문답은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한 학교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지 않은 그의 교회교육 실체에 관한 문헌으로부터 우리가 대충 그려본 루터의 교회교육의 실체는 다른 누구 보다 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미숙한 신앙인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교회교육의 실체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루터에게 교육이란 역시 '어린이를 다스린다는(Kinder regieren)'는 개념이고

따라서 그에게서 교회교육도 미성년과 미성숙한 자를 대상으로 교회의 행위인 것이다. 다시말하여 루터에게서는 성숙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개념은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왜 그의 교회개념에서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이유와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칼빈의 교회론과 교회교육

1. 칼빈의 교회론

칼빈의 「기독교강요」(1559)의 4권에는 그의 교회에 대한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교회에 관한 그의 기본 입장과, 교회의 가르침, 차리, 교회법등에 관한 그의 의견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칼빈의 교회론을 그의 기독교강요 4권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교회의 필요성

칼빈은 「기독교강요」의 교회론 부분인 IV권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Gemeinschaft)에로 부르시고 또한 그 연합을 유지시키시는 외적인 방법들과 도움들에 관하여”라고 붙였다. 이 제목은 칼빈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를 먼저 하나님께서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로 부르시고 그 일치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44) M. Luther, "Vorrede zum Großen Katechismus, 1530", BLSK 545-553.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인간이해를 상기해 볼 수 있다. 그에게서 죄인인 인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경험한 후, 평생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상에 서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고 약하여 혼자 이것을 해 나아갈 수가 없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돕고 동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강요 4권 일장의 첫머리인 1절에서 그는 교회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에 어떤 외적인 도움이 요청되는데, 이 도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한 이 믿음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기 까지 성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돕기 위하여 외적인 통로를 세우셨다;”⁴⁵⁾

또한 칼빈은 그의 인간이해에서 ‘양육’의 개념을 그의 교회론에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에 인도되어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외롭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안에 서있다. 교회는 평생동안 완전을 향하여 가는 도상, 즉 성화의 과정에 서 있는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piorum omnium mater)’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신자들을 평생에 걸쳐 양육하고 보살피는 곳이라는 것이다.

“우선 교회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의

45) Instituto, IV, 11.

뜻에 따라 교회의 품안으로 그의 자녀들이 모여야 한다. 그들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여 교회의 노력으로 양육받아야 될 때 뿐 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묶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는 안된다 (막 10:9):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올별 아래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IV 1, 1)

그래서 칼빈은 1장 4절에서 ‘어머니’로서 교회를 약한 우리를 평생동안 양육하고 보살피는 학교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 결코 이 뜻을 떠날 수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있는 한 교회라는 학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다.”(IV 1, 1)

양육하는 곳으로서의 교회개념은 다음과 같은 그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체라는 종의 집에 갇혀있어서 아직 천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의 이해능력에 맞추셔서, 하나의 통로와 방법을 처방하셨는데,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로부터 멀리 있어도 그에게로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다.”⁴⁶⁾

그에 의하면 약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이해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인간은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

46) Ibid.

카이 느낄 수 있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아름다치오 테이 (accommodatio Dei)” 즉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능력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여 계시하시는 인간을 위한 “눈높이 교육”인 것이다.⁴⁷⁾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의 교회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칼빈에게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돕기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으로 이끌리고, 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인간은 양육된다. 따라서 칼빈의 교회에서 교육이란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과제이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칼빈은 교회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현존하는 신도들의 공동체로 보는 것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무리”라고 하였다.⁴⁸⁾ 이 공동체는 물론 살아있는 신자들 뿐 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모두 포함되는 하나의 통일적인 교회의 개념(Einheit der Kirche)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에게서 참 교회는 참 사도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참 사도적인 교회를 재는 척도라고 한 반면에, 칼빈에게서는 참 교회란 하나님의 참으로 선택된 백성(electi)들의 무리가 된다. 그런데 칼빈에게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인간에게는 숨겨져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47) “accommodatio Dei”에 관하여 Hedtke의 앞의 책, 33쪽 이하; 양금희, “칼빈의 교육사상”, 신학과 목회, XI집 영남신학대학교 1997, 196-261쪽 참조.

48) Institutio, IV, 1, 2.

시는 사건이다. 참교회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Sichtbare Kirche)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unsichtbare Kirche)인 것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누가 그의 백성인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바울리 말한바와 같이 인장을 찍어 봉하셨다(엡 1:13, 딤후 2:19) 물론 그들을 더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로지 작은 무리가 많은 무리 안에 섞여 있고, 또한 참 알곡이 많은 가라지 아래 섞여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그의 참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참 교회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열여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⁹⁾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참 교회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영역보다는 작은 것일 수 있다. “외적인 교회의 표시들, 즉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세례, 성찬, 말씀, 직분” 등은 교회를 특징 지어주는 표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참 선택된 사람들(electi) 뿐만 아니라, 가라지들도 섞여 있기 때문이다.⁵⁰⁾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칼빈이 외적인 가시적인 교회(externa ecclesia)를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가 비록 참교회는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함으로써, 보이는 외적인 교회와 보이지 않는 참교회를 구별하였어도, 이것이 그가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생각하거나 중시한

49) Institutio, IV, 1, 2.

50) Institutio, IV, 1, 7.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고백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sanctorum communicatio)'를 설명할 때에도 그는 이것을 가시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그 교회와의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참교회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인간의 눈에 교회로 불리워지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그와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⁵¹ 칼빈에게서 참교회란 이 가시적인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가시적인 교회라고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참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앞서 말했던 대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양육의 사명 때문에 그러하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신 일차적인 뜻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한 순간에 완전케로 이끄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로지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려는 뜻을 갖고 계시다."⁵²

하나님이 그의 은밀한 선택으로 그의 백성을 선택하였고,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고, 교회의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기 위하여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보이는 교회는 따라서 종말론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 명에서

존립해야 할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따라서 칼빈에게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서로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개념에 있어서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될 수는 없다. 그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존재하고 따라서 보이는 교회 밖에는 용서도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입장이 자명해진다. 그러나 또한 보이는 교회는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는 교육적인 사명을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3) 교회의 표시 (notae ecclesiae)

칼빈은 교회의 표시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포괄하는 '우주적인 교회(ecclesia universalis)'와, '개개의 교회(singulae Ecclesiae)',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는 개개 인간들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표시(notae)를 말하면서도 먼저 교회에 속한 개개의 교인의 표시를 언급하였다. 교인으로서 표시란 그에 의하면 '신앙의 고백'과 '삶에서의 모범'과 '성찬에의 참여'이다.⁵³ 이 표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교회에 속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에게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교인의 표시를 그의 삶을 통

51) Institutio, IV, 1, 7.
52) Institutio, IV, 1, 5.

53) Institutio, IV, 1, 8.

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교인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과 성찬의 참여라는 형식적인 표시 뿐 아니라 교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됨의 표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자체가 갖는 표시(ipsius corporis notitia)'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경청되며, 성례가 예수그리스도께서 세우신대로 집행되는 것이다"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다.⁵⁴⁾ 교회의 표시로서 말씀이 선포와 성례의 집전을 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과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뿐 만아니라 '경청된다'고 하는 차원도 교회의 표시에 넣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전이라는 것이 단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⁵⁵⁾ 칼빈은 교회의 표시가 단순히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만 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적인 열매맺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은 루터나 멜랑히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무오성(Frühertlosigkeit)'이 교회의 표시는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카톨릭의 교회로부터 구별되는 개신교회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살핀대로 칼빈은 교회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일과와 가라지, 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IV 1, 13). 칼빈은 부족한 인간들을 양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무오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완전하고 무흠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IV 1,

16), 오히려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매일 새롭게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과제를 늘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관건이라고 하였다 (IV 1, 20).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칼빈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려도 무관하다는 입장에 섰던 것은 아니다. 칼빈은 교회가 무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함으로써 오점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씻기시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IV 1, 17). 교회를 통하여 인간은 계속해서 죄사함을 얻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

4) 교회의 직책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심으로하는 교회(Amtskirche)이다. 루터의 교회가 원칙적으로 만인 제사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라면, 칼빈은 이보다 훨씬 강하게 직책중심의 교회개념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직책(ministerium)과 그 직책을 맡은 자(ministri)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하였다.⁵⁶⁾ 하나님의 그의 교회를 친히 세우신 것처럼 그 안의 직분자들도 친히 세우셨는데, 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하였다.⁵⁷⁾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하게 하는 이유를 칼빈은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인간만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

56) Institutio, IV, 3, 1.

57)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물론 모든 다른 도움이나 도구 없이도 혼자서 행하실 수 있고, 또한 그의 천사를 세워서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오히려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Institutio, IV, 3, 1.

54) Institutio, IV, 1, 9.

55) Institutio, IV, 1, 10.

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교회의 안의 인간들을 직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한데 묶으신다.⁵⁸⁾

따라서 칼빈에게 직분이란 철저히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쓰시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신앙은 “복음의 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이 복음은 바울 사도의 말대로 ‘들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들음의 사건은 결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IV 3, 4).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 사역을 그는 인간을 도구로 하여서 이루신다. 교회는 외적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지만, 이를 하나님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조명하십시오께 가르치시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가르침을 위하여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셨고,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직분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사도직이 단순히 귀에 울리는 말을 함으로써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역사가 함께 함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고후 3:6). 그는 또한 갈라디아인들이 믿음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음을 상기시켰을 뿐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직책을 사모함을 말하고 있다 (고전 3:9).⁶⁰⁾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서 직분자란 그의 직분을 위하여 하나

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자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루터에게서는 교회 안의 필요한 기능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공적인 직분이 필요하고, 이 공적인 직분은 세례를 통하여 받은 제사장적인 직분 위에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임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했다. 칼빈에게는 그러나 성직자(Klerus)와 평신도, 교인들과 직분자라는 구별이 뚜렷하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과 소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⁶¹⁾ 이 소명은 이중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생기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 소명이고, 이와 나란히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루터는 교회의 영적인 직분을 비숍(감독)과 목사(혹은 설교가)로서만 규정짓고 있다. 감독직은 목사로서 수행하는 직분이고, 또한 설교가라는 명칭을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혹은 설교가’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였으니 루터에게서 영적인 직분은 넓은 의미의 ‘목사’라는 직분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밑줄에 밑각하여 ‘사도’와 ‘예언자’, ‘목사’와 ‘교사’의 넷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들 중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 항존하는 일상적이고, ‘사도’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이 시작될 때 세우신 직분이지만 항존하는 직분이 아니고, 필요할 때 세우시는 직분이라고 하였다 (IV 3, 4). 이와 나란히 칼빈은 교회 안의 직분을 네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하여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사중직이 그것이다.⁶²⁾

58) Ibid.

59) Institutio, IV, 3, 2.

60) Institutio, IV, 3, 6.

61) Institutio, IV, 3, 11.

62) Institutio, IV, 3, 4.

목사의 직은 그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직분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집전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일을 담당한다.⁶³⁾ 뿐만 아니라 복음선포와 성례의 집전 외에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정이나 결정들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IV, 3, 6) 따라서 목사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중심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사는 교사와 장로 집사와 직을 겸하는 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목사의외의 모든 다른 직분은 칼빈에게서 단지 목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과 나란히 없어서는 안될 직분이다.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이 두 직분 없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고 하였다 (IV, 3, 4). 그러나 칼빈은 이 ‘교사’의 직분에 관하여 다른 직분들처럼 상세한 설명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가 구상하였던 교사와 직분을 구체화 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그가 교사에 관하여 주는 간단한 서술을 보면:

“교사는 목사와는 달리 치리나 성찬의 집례나 행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건진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유지되도록 도와야 한다.”⁶⁴⁾

‘교사’의 라틴어 단어가 ‘doctor’인 것을 보면 아마도 칼빈은 ‘교사’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를 생각하였던 것 같다.

‘장로’도 원칙적으로는 목사를 돕는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장로는 ‘다스리는 자(gubernatores)’라는 의미로도, ‘연장자(seniores)’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들은 ‘윤리적인 단속(censuramorum)’과 ‘치리(exercenda disciplina)’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목회실제를 통하여 장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장로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감독하고 다스리며, 문제교인들을 목사와 협조하여 신도하는 등의 과제, 즉 치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칼빈은 장로들이 교인들의 삶을 지도하고 신도하는 과정에서 수권 정지를 결정하는 열쇠(Schlüssel)의 직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집사’의 직에 관하여서 칼빈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였다. 집사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과부를 돌보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자와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자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IV, 3, 9).

5) 치리(disciplina)

칼빈의 교회론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치리(disciplina)’이다. 칼빈은 교인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필요한 도움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치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루터가 이신칭의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칼빈은 ‘성화’를 중시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그의 치리개념에서도 발견했다.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은 말씀의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강조한 루터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그 말씀의 가르침 즉 독트리나와 나란히, 교회가 신도들의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돕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다스리거나 즉 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63) Institutio, IV, 3, 6.

64) Institutio, IV, 3, 4.

그래서 치리를 칼빈의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선포'와 '성체전의 집전'에 이은 세 번째의 교회의 표시(*nota*)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칼빈은 독트리나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이처럼 칼빈의 교회에서는 치리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핀 대로 칼빈은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열매 맺고 삶으로 연결될 때 참교회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이 그의 치리개념에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을 본다. 치리는 거듭난 자가 삶 속에서 율법을 가까이 행하게 된다는 그의 율법의 '재 삼 사용(*tertius usus Legis*)'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통로가 되는데, 신자들이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켜나아가도록 감독하고 독려하는 것이 치리인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치리'의 라틴어 단어는 '디스시플리나(*disciplina*)'이다. 디스시플리나는 어원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독일어권에서는 "쭈호트(*Zucht*)"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교육 혹은 훈련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서 치리는 그 어원상 볼 때 이미 교회의 교육적인 차원, 즉 삶의 훈련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디스시플리나는 칼빈에게서 '독트리나(*doctrina*)'와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독트리나 하나님 말씀이나 교리의 이론적인 가르침을 말한다면, 디스시플리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교육을 지칭한다.⁶⁵⁾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doctrina*)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치리(*disciplina*)이 교회의 힘줄과 같이서 몸의 각 지체를 연결시킨다고 하였다.⁶⁶⁾

65) Hedtke의 앞의 책, 117쪽 이하.

66) Instituto, IV, 12, 1.

치리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고 이를 통하여 교회전체를 바른게 사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특별히 그들이 죄악된 삶에로 퇴보하지 않게하기 위하여 삶과 윤리의 차원에서는 주는 교회의 계속교육적인 도움이 곧 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치리의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⁶⁷⁾: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의 교통으로 똑같이 악하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죄인들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개선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치리는 먼저 개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영위해 나아가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로세운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칼빈의 교회론과 교육

1)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에 나타난 '교육목회'적인 측면

앞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교육'의 핵심적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그의 교회에 대한 필요성과 기방방향에서부터 확인해 드러난다. 그는 교회란 부족하여서 스스로는 신앙을 가질 수도, 그리고 신앙에 견고히 설 수도 없는 인간을 돕기 위하여 새우신 하나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았다. 그에게서 신자의 양육이란 교회존립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에게서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삶의 양식은

67) Instituto, IV, 12, 5.

하나님의 인간을 교육시키는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의 과정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⁶⁸⁾

예를들어 그는 참교회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무리라고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참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분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는 교회를 증시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교회의 양육의 사명 때문에 그러하다.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고 그의 선택된 백성을 순간적으로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성숙 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보았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참교회에 속하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이 양육의 사명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적으로 서로 연결된다.

이 양육의 사명 때문에 칼빈은 교회를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어머니처럼 교회는 신자를 잉태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기관인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갖는 신자의 양육이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하고 신앙을 갖게하는 시작을 놓는 일과, 더 나아가 '성화'의 과정에서 있는 신자들을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계속교육적인 차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삶의 양식들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성화의 과정을 인도한다는 이 두 측면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교회의 표시인 하나님의 말씀 선

포와 성찬의 집전도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신자들이 신앙을 갖고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성숙하게 되는데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 안의 직분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의 양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칼빈의 개념에서 우리는 '교육목회'적인 착점을 읽을 수 있다. 교회의 존립의 근거를 신자들의 양육에 두고 있는 칼빈의 교회개념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삶의 양식들이 결국은 이 양육이라는 목적으로 수립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그는 교육을 교회의 활동중 어느 한 부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 전체가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을 양육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목회 전체를 교육과 관련시키는 '교육목회'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비교적 현대적인 단어인 '교육목회'라는 언어를 사용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교회교육의 개념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현대적인 의미의 교육목회적인 착점들과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⁶⁹⁾ 우선 첫째, 칼빈은 교회 자체를 '교육하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으로서 교회의 목회는 이 하나님의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목회적인 교회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 칼빈은 교육을 교수-학습의 현상으로 축소하여 보지 않았다. 그는 교회를 통한 모든 경험들, 즉 말씀의 가르침 뿐 만 아니라 성례전의 참여, 그리고 올바른 삶의 훈련(디스시플리나)들도 모두 교육적

68) 참조, 양금희, "존 칼빈(John Calvin)의 교육사상", 신학과 목회, 1997, 212쪽 이하.

69) 참조, 양금희, "교육목회의 정착을 모색하며",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교육 연구소, 교육정책세미나, 1997.

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그는 교육의 대상을 단순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국한하여 보지 않았다. 이미 그는 그의 신학적인 인간학의 바탕에서 인간은 평생에 걸쳐 완성을 향하여 성화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이 성화의 과정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동안 성장의 과정에 있고,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인간들을 평생동안 교육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그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몇째, 그는 실제로 그의 목회적인 실천 속에서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목회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루터에게 있어서 교육의 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고, 성인은 말씀의 선포가 주가 되는 목회의 대상인 반면에, 루터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칼빈이 개인교 최초의 교육목회 이론가이며 실천가였음을 증명해 주는 단서가 된다.

2) 칼빈의 교육목회적인 실천

칼빈의 그의 교육목회적인 시각을 그의 제네바 교회에서의 목회적인 실천에서도 일관되게 구체화 시켰다. 그는 모든 회중들의 교육목회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천하였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을 신자로 인도하기 위하여 처음의 기초를 놓는 것파, 다음으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기까지 신앙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⁷⁰⁾ 전자는 주로 아직 입교가 이루

어지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후자는 입교 후의 성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1)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칼빈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개념은 교회, 가정, 학교를 세 중심적인 장소로 하는 교육이었다. 교회에서는 교리 문답(Catechesis)을 중심으로 하는 세례와 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작은 교회(parvae ecclesiae)'로서 교회의 위탁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르쳐 져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는 교회의 위탁을 받아 교회와 세상에서 필요한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는 나름대로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 셋은 모두 궁극적으로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교육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교회 교육 개념이 교리적인 교육과, 경건한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개념이었음을 확인한다.

2) 성인교육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이 교육목회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그의 성인교육개념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설교와 교육: 칼빈은 먼저 설교를 교육과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현대적인 의미의 '설교'와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독트리나'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독트리나의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사건, 성서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에

70) Hedtke의 앞의 책, 40쪽 이하 참조.

게는 교회의 시작이며 기초가 된다. 그는 이 독트리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자들의 신앙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⁷¹⁾ 그래서 그는 이 독트리나가 실패 뿐 만 아니라, 교리문답, 강요(Instytut), 더 나아 성례전을 통해서도 매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독트리나가 바로 매개되기 위해서는 이해가능하고 설득가능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것이 신자들의 신앙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기 위하여 신자들의 삶을 형성하는 데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독트리나는 - 라틴어 어원이 이미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 필연적으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독트리나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실패도 칼빈에게서는 교육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P. 부룬너는 그의 설교를 교육적 설교(lehrepredigt)라고 하였다.

성인 카테쿠메넷 (Erwachsenenkatechumenat)과 쿤그리케이션 (Congregation): 성인 카테쿠메넷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교리수업이었다.⁷²⁾ 카테쿠메넷은 주로 세례와 입교인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칼빈은 입교인에게도 계속해서 체계적인 독트리나 수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인 카테쿠메넷을 설치하였다. 성인 카테쿠메넷에서 더 발전된 단계는 쿤그리케이션이었다. 이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수준있는 신학수업이었다.

치리(disciplina): 치리 또한 칼빈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중요

71) CR, 52, 124 쪽 3, 16; "Doctrina hic pro utili eruditione capitur, quae ad aedificationem valet ..."; CR, 55, 66, 히 5, 22. Hedtke의 앞의 책, 41 쪽 참조.

72) Hedtke의 앞의 책, 98쪽 이하.

한 실천영역이 되었다. 칼빈은 치리를 통해서 교인들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독트리나(doctrina)를 통하여 가르친 말씀이 이 치리(disciplina)를 통하여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래서 치리는 신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권면함으로써, 신앙적인 삶의 턱보를 막고,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교회의 삶의 훈련이었다.

이처럼 칼빈은 교회가 회중 전체의 신앙생활을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교육목회적인 실천을 제시하여 주었다.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에는 신자의 '계속적인 신앙의 성숙'이 핵심개념이 되고, 그는 이를 목회 전체의 과정, 즉 설교에서 치리에서 성례와 행정 속에서 추구해 나가는 교육목회적인 실천을 제시하였다.

IV.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

앞에서는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과 그 교회론을 바탕으로 두 개혁자의 교회교육의 개념과 교회교육의 실제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 두사람의 교회교육 개념 및 구조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1. 교회에서의 교육의 위치

앞의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루터와 칼빈 두 개혁자의 교회론에서 교육의 위치는 서로 대단히 상이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루터의 교회론에서 교육은 그다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루터의 교회이해는 '말씀의 교회'로 집약되는데,

그는 말씀의 '교육'보다는 말씀의 '선포'에 교회의 주파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교육과 선포를 나누어 생각하면서 교회의 핵심적인 파제는 교육보다는 선포에 있다고 보았으며, 교회론적인 저술에 있어서도 교육에 관련된 토론이나 논지들을 특별히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적인 장은 오히려 토론이나 논지들을 특별히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적인 장은 오히려 토론이나 논지들을 특별히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적인 장은 오히려 토론이나 논지들을 특별히 전개하고 있지 않다.

루터의 교회론에서 교육이 주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칼빈의 교회론에서는 교육의 개념이 그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과 관련된다. 칼빈은 이미 교회의 존립의 목적 자체를 신자의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이다. 그래서 칼빈에게 교회와 교육이라는 개념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서 있고,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교회 전체를 포괄하는 궁극적인 파제가 양육이라고 보고, 이 양육의 영역 안에서 모든 형태의 교회의 활동과 삶의 양식들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교육의 개념은 교회의 다른 기능이나 과제와 구별되는 한 작은 영역에 속한다고 하기 보다는, 교회의 모든 행위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양육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육 안에 모든 교회의 행위들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교육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교회교육의 개념 안에서 우리는 현대적인 교육목회의 이론적인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교회의 목회전체를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었고, 목회를 교육적으로 그리고 교육을 목회전체의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는 교육목회적인 인본을 가지고 있었다.

2.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 구조에 미치는 신학적인 신학적인 입장의 비교

그러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교회에서 교육의 위치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먼저 그 두 개혁자의 신학적인 이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

1) 이신칭의와 성화

신학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루터의 신학에서는 '이신칭의' 개념이 관건이라면, 칼빈에게는 '이신칭의(Rechtfertigung)'와 나란히 '성화(Heiligung)'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⁷³⁾ 루터에게서는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신학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다.⁷⁴⁾ 이 이신칭의가 크게 강조되는 성향이 나타나는 반면, 그에게는 '성화'의 개념, 즉 신자의 계속적인 성장과 완성을 향한 발전과정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교회개념에서도 인간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통로인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들음이 중시되는 것은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만, 신자의 계속적인 성장과 완성을 향한 발전과정들과 이를 위한 교

73) 참조,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472

쪽; U, Kuhn, Kirche, Handbuch Systematischer Theologie, Bd. 10, Güttersloh, 1990, 60쪽.

74) B. Lohse, Luthers Theologie, Göttingen, 1995, 274쪽 이하.

회의 도움이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현상을 발견한다.⁷⁵⁾ 그는 '교육'의 대상도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혹은 초보적인 기독교인을 생 각하였다. 다시말하면 그는 교육을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기초 를 놓는 것과 만 관련시키고 있다. 칼빈의 경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인도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 즉 성화의 과정 안에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루 터에게서 완성을 향하여 성숙하여가는 '성화'를 위한 교육의 측면이 중시되지 않는 것이, 그의 교회론에서 교육이 큰 비중을 얻지 못하는 것과 내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와는 반대로 칼빈은 '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하는 과정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라고 할 정도로 성화를 강조하였다. 이 성화를 돕는 교육의 과정은 칼 빈의 교회에서 교회의 존립근거를 결정지을 만한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한 평생동안 떠날 수 없는 '어머니 학교'라고 하였다. 칼빈에게서는 인간이 성화의 과정에 평생동안 서 있다는 개념이 그의 교회가 이러한 교인들을 평생에 거 쳐서 양육해야하는 사명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연 결되면서 교회의 존립의 근거 자체가 교육과 연결되고 있다. 이처럼 '성화'에 비중을 얼마나 두는지가 두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서의 교 육의 위상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5) U. Kühn은 Luther와 melanchton, 그리고 Calvin의 교회론을 비교 하면서 루터에게서 다른 두 개혁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화'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에 대한 강조가 빈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U. Kühn의 앞 의 책, 21-76쪽.

2) '말씀'에 관한 이해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두 사람의 신학적인 이해도 교회에서 의 교육에 대한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에 게서 교회가 말씀의 교회로 집약되는 것은 그의 '이신칭의' 개념과 내적인 관련성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있는데, 성서 의 증거대로 믿음은 들음, 곧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복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데하여 말하고 있지 '복음의 가르침(doctrina de evangelio)'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루터의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루터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애당초 실교를 통 하여 구원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책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선포되고 실교된 말씀이었다. 이것은 구약성서가 그러하고 또한 사도들에 의하여 선포된 것을 기초로 하는 신약성서가 그러하 다."⁷⁶⁾

이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당초 선포된 말씀이듯, 말 씀의 선포 즉 실교를 하나님 말씀을 매개하는 통로로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루터는 앞서 고찰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신은 해석하도록 한다 - 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스스로가 해석해 주는 것이지, 카톨릭교회에서처럼 중간해석자의 해석을 필요

76) M. Luther, "Kirchenpostille 1522", WA 10 I 1, 626, 15-20.

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⁷⁾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그리스도가 서 있고, 이 예수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명료하고 분명하여서 특별히 중간에 어떤 중재자의 해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⁷⁸⁾ 따라서 말씀에 관한 해석, 즉 '교육'은 루터에게서 관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말씀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성령(Geist)의 내적인 조명하심에 의하여 밝혀지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성서의 언어적이고 외적인 이해가 선행되면, 이 언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적인 이해가 뒤따라야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깨달아 지는데, 이 내적인 이해란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해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의 가르침 보다는 말씀의 선포가 관건이 된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말씀의 선포(*praedicatio evangelii*)나 말씀의 가르침(*doctrina deevangelio*)을 루터처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 루터에게서 '말씀(Wort)'이 교회의 존립과 유지에 결정적인 단어라면, 칼빈에게서는 '독트리나'가 루터에게서 말씀을 대치할 수 있을 만큼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인들을 교육하는 기초가 된다.⁷⁹⁾ 그

77) B. Lohse의 앞의 책, 207쪽.

78) "... ut sit ipsa per sese certissima, factima, apertissima, sui ipsius interpretes, omnium omnia probans, iudicans et illuminans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아주 분명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매우 뚜렷하게 스스로를 해석하신다. 따라서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의하여 증명되고, 마르게 세워지며 또한 밝혀진다)", "Assertio omnium articulorum...", 1520", WA 7, 97, 23f.

79) Hedike은 칼빈의 *doctrina*가 칼빈의 신학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것은 칼빈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doctrina*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칼빈은 "교회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는 것이 *doctrina*이

런데 이 '독트리나'를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모든 형태의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Doktrine)를 지칭할 때 폭넓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독트리나는 인지적인 차원과, 삶의 차원,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차원이라고 하는 세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⁸⁰⁾ 그래서 칼빈에게서는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루터에게서처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독트리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교육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 처럼, 독트리나는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치지며, 또한 바르게 삶 인으로 적용되고, 이를 통하여 삶의 개선과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칼빈이 존립과 유지에 독트리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다면, 이 독트리나는 그 자체로 교육의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은 교회의 존립과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관한 루터의 이해와 독트리나에 관한 칼빈의 이해가 교회 개념 안에 교육의 위상에 관한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로 들 수 있겠다.

우리는 위에서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육의 위치에 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두 사람의 신학적인 기본입장과, 성화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들은 물론 그 두 개혁자에게 있어서 교회에 "다"고 하였다. CR 48, 57, 행 2, 42.

80) 칼빈은 담후 3, 16절의 해석에서 *doctrina*의 삼중적인 쓰임을 인식(*scientia*)의 차원과, 삶의 형성(*institutio fromandae vitae*), 그리고 훈계와 교훈을 위한 자극(*stimuli exhortationum et reprehensionum*)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CR 52, 384, 담후 3, 16; *doctrina*를 설명해주는 구절은 이 외에도 CR 49, 517, 고전 14, 3; CR 49, 86,의 다수를 들 수 있다.

의 교회론에서 핵심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로 귀결되도록 하고 있다. '인간적인 책임'으로 구원과 믿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은 인간의 영적인 구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의 나라인 교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영의 나라의 가장 으뜸되는 것은 믿음이고, 율법이 나 행위는 이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하나님교육(paedagogia Dei)', 즉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고 교육하시되 이를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교육의 카테고리 속에서 교회교육을 보았다.⁸³⁾ 칼빈은 가르침이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견고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회적인 경험의 총체를 교육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이 결국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총체를 교육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이 결국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나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영역에 교육을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포함하여 삶을 훈련하는 치리(다스시플리나)도 교회의 교육의 중요한 통로로 보았고,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기초를 놓아야 할 초보자적인 기독교인들만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중 모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육의 대상이듯 교회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83) R. Hedtke, Buschbeck는 칼빈의 교육개념이 넓게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의 카테고리에서 보고 있다. Hedtke의 앞의 책, B. Buschbeck "Johannes Calvin", in: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1989.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서 교회에서의 교육개념이 선포되는 구별되는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칼빈은 교육이나 선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신앙성장을 이루는 하나님 교육의 일환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게서는 교육은 인간의 책임이고, 실패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구분 보다는, 실패나 교육이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루터가 교육을 인간적인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복음보다는 율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칼빈은 그의 교육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교육(paedagogia Dei)', 즉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고 교육하시되 이를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교육의 카테고리 속에서 교회교육을 보았다. 그래서 칼빈에게서는 교육과 선포, 교육과 설교가 루터에게서처럼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교육의 일환이기에 궁극적으로 이 둘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칼빈에게서 모든 형태의 교회의 교육은 그것이 인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일환이 된다. 따라서 칼빈에게서는 루터적인 교육의 한계정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칼빈에게서 교육은 교회의 핵심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의 기본개념과 구조에 있어서의 차이가 물론 그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에서도 근거하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의 교육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결정적으로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 두 개혁자가 신학자였고, 또한 목사였지만, 그리고 그 당시가 기독교교육학이나 교육학이라는 학문

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교회의 교육에 대한 구조와 위상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학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이해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두사람은 물론 '교육'이라는 개념을 오늘날의 기독교교육학자들 처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의식적으로는 혹은 무의식적으로는 그들이 교회교육적인 사고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에초에 루터와 칼빈 두 개혁자의 '교회교육' 개념과 구조라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고찰 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결국 그 두 사람의 교육이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귀결하게 되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교육적인 사고구조 속의 어느 한 부분에 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그의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기본 입장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개념에 관한 상반된 두 개혁자의 이해에 의하여 그들이 교회교육 구조가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모든 학문 이전의 기독교교육은 신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은 일반화할 수 없는 편견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참 고 문 헌

M. Luther에 관한 문헌

약 자

WA = Weimarer Ausgabe

TR = Tischreden

BSLK =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e

Lutherischen Kirche

Bo = Bonner Ausgabe

1. 원 전

Luther, M., "An die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 1520, Wa 6, 404-465

_____, "An die Ratsherrn aller Städte deutschen Landes, daß sie christliches Schulen aufrichten und halten sollen 1524, WA 15, 27-53

_____, *De servo arbitrio* 1525, Bo Bd 3

_____, *Deutsche Messe und Ordnung des*

Gottesdienstes 1526 Bo Bd III 294-309

_____, *Der kleine Katechismus* 1529 BSLK 501-541

_____, *Der kleine Katechismus* 1529 BSLK 545-738

_____, "Eine Predigt, daß man Kinder zur Schule

halten solle" 1530 WA 30 II, 517-588

_____, *Genesisvorlesung* 1535

_____, "Disputatio über den Menschen" K. Bornkamm,

G. Ebeling 편, <Martin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Bd. II 294-296

_____, "Von den Konziliis und Kirchen 1539", WA 50,

624, 15-20.

_____, "Von dem Papsttum zu Rom wider den

hochberühmten Romanisten zu Leipzig" WA 6, 277-324

_____, "Von Hans Worst

2. 이차문헌

양금희,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

교육논총 1, 1996

오인택, "루터" 안: <기독교교육사> (교육목회 1989) 161-18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_____, <전통과 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정성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총신대학출판부 1983)

Ashelm, I., *Glaube und Erziehung bei Luther* (Heidelberg,

1961)

Bornkamm, H., "Luther" Leben und Schriften, R. G. G. Bd

4(Tübingen, 1960), S.480-495

Charpentier, A. B., *Reformation und Bildungswesen*

Pädagogische Voraussetzungen von Schulflichtkeit im beginnenden 16. Jahrhundert (Frankfurt a.M., 1975)

Ebelingen, G., *Martin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Frankfurt a.M., 1975)

Erasmus von Rotterdam, *De libero Arbitrio* 1524, J.

Walter(Hrsg.) *Quellenschriften zur 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Hft. 8, deutsche Übersetzung von O. Schumacher, Vom freien

Willen (Göttingen, 1956)

_____, "Über die Notwendigkeit einer frühzeitigen

allgemeinen Charakter und Geistesbildung der Kinder", A.

Gail(besorgt), (Paderborn, 1963) S.107-159

Erikson, E. H., *Der junge Mann Luther* (Frankfurt a.M.,

1975)

H.-J. Feaas, *Katechismustradition Luthers kleiner*

Katechismus in Kirche und Schule (Göttingen, 1971)

Freul, R., *Luther und die Praktische Theologie* (Marburg,

1989)

Goebel, K(Hrsg.), *Luther in der Schule* (Bochum, 1985)

Hahn, Fr., *Die Evangelische Unterweisung in den Schulen*

des 16. Jahrhunderts (Heidelberg, 1971)

Hofmann, F., *Pädagogik und Reformation* (Berlin 1983)

Jetter, H., *Erneuerung des Katechismusunterrichts*

(Heidelberg, 1965)

Kaufmann, H. B., "Martin Luther", H. Schröer D.

Zillenßen(Hrsg.),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a.M.,

1989), S.7-23

Kerr, H. T., 편 김영환 역, <루터신학 개요>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1)

Kuhn, U., *Kirche Handbuch Systematischer Theologie* Bd 10 (Gutersloh, 1980)

Lindsay, Th. M., 이형기, 차종순 역, <宗教改革史 I II>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0, 1991)

Meserley, H. J., *Luthers Lehre vom unfreien Willen* (München, 1967)

Melancthon, Ph., "Unterricht der Visitatoren an die Pfarrherrn im Kurfürstentum zu Sachsen", 1528 jetzt durch D. M. Luther korrigiert 1538 WA 26, 237-240

Nipkow, k. E./ Schweitzer, Fr., *Religionspädagogik. Texte zur evangelischen Erziehungs- und Bildungsverantwortung seit der Reformation*, Bd. I (München, 1991).

Petzold, K., *Die Grundlagen der Erziehungslehre im Spätmittelalter und bei Luter* (Heidelberg, 1969).

Rehle, A., *Geschichte der Pädagogik* (Stuttgart, 1964).

Schelczyk, L., *Der Mensch als Bild Gottes* (Darmstadt, 1969).

Schneuerl, H., *Pädagogische Anthropologie* (Stuttgart, 1982).

Schoch, G., *Die Bedeutung der Erziehung und Bildung aus der Sicht des Erasmus von Rotterdam* (Zürich, 1986).

Schweitzer, Fr., *Die Religion des Kindes zur Problinggeschichte einer religionspädagogischen Grundfrage*

(Gutersloh, 1992).

Stoodt, D., *Arbeitsbuch zur Geschichte des evangelischen Religionsunterrichts in Deutschland* (Münster, 1985)

J. Calvin에 관한 문헌

1. 원전 및 약자

CR : Corpus Reformatorum, Opera Calini.

OS : Opera selecta es. Petrus Barth, Guilenus Niesel, München, Kaiser

Vol. I.: Scripta calvini ab anno 1533 usque ad annum 1541 continens. 1926. XI.

Vol. II : Tractatus Theologicos monores ab ane 1542 usque ad annum 1564 editos continens. 1952. XIX.

Vol. III :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libros I. et II. contin. 1928. LXV.

Vol. IV : Institutionis Christ. rel. 1559 lib. III. contin. 1931. XI.

Vol. V : Institutionis Christ. rel. 1559 lib. IV. contin. 1936. XI.

Instituto :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Instituto Christianae Religionis, Nach der letzten Ausgabe übersetzt und bearbeitet von Othb Weber, Neukirchener Verlag, 1955/1988.

de Jong,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April, 1969, Nov., 162-201.

de Kroon Martin, Martin Bucer und Johannes Calvin,

Göttingen, 1991.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 신

학, 대한 기독교서회, 1983.

Opitz, Peter, Calvins theologische Hermeneutik, Neukirchen,

1994.

Pixberg, H., Der deutsche Calvinismus und die Pädagogik,

Gladbeck, 1952.

Reid, W. S.,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Nov. 1955,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Rodewald, Otto, Johannes Calvins Gedanken über Erziehung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seiner Briefe, Diss. Erlangen,

1911.

Smart, J. D., 장운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대한 기독교교

육협회, 1960.

Strasser, D. E., "Calvin, Johannes (1509-64), Leben und

Schriften", in: R. G. G. Bd. 1, S.1588 Thudichum, M. C. Calvin als

Pädagoge, Phil. Diss München, Genf, 1914.

——, 전통과 개혁,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0.

황성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 연구, 총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정정숙, "칼빈의 교육사상",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총신대학 출판부, 1983, 134-187쪽.

Bainton, Roland,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서영일 역, 16개기 종교개혁, 도서출판 은성, 1992.

Battles, Lewi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양계나, 강명희 공역, 기독교 강요 분석, 대한 예수교장로의 총회 교육부, 1983.

Buschbeck, Bernhard, "Johannes Calvin (1509-1564)", in : Hrsg. von Hennig Schröer und Dietrich Zilleßen,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am Main, 1989.

Coetzee, J. C., John Grand-Contemporary Prophet, by T. Hoogstra, Grand Rapids, Erdman, 1959.

Ganoczy, Alexandre und Scheld, Stefan, Die Hermeneutik Calvins geistesgeschichtliche Voraussetzungen und Grundzüge, Wiesbaden, 1983.

Hedtke, Reinhold,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Der Unterweisungs- und Erziehungsauftrag der Kirche und seine anthropologischen und theologischen Grundlagen, Heidelberg, 1969.

Holl, Kar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II, Der Weste, Johannes Calvin, Tübingen, 1928

Kraus, H. J., Paedagogia Dei als theologischer Geschichtsbegriff, in Evangelische Theologie 11, 1949.

- de Jong,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April, 1969, Nov., 162-201.
- de Kroon Marijn, Martin Bucer und Johannes Calvin, Göttingen, 1991.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대한 기독교서회, 1983.
- Opitz, Peter, Calvins theologische Hermeneutik, Neukirchen, 1994.
- Pixberg, H., Der deutsche Calvinismus und die Pädagogik, Gladbeck, 1952.
- Reid, W. S.,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Nov. 1955,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 Rodewald, Otto, Johannes Calvins Gedanken über Erziehung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seiner Briefe, Diss. Erlangen, 1911.
- Smart, J. D., 경운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60.
- Strasser, D. E., "Calvin, Johannes (1509-64), Leben und Schriften", in: R. G. G. Bd. 1, S.1588 Thudichum, M. C. Calvin als Pädagoge, Phil, Diss München, Genf, 1914.

“루터와 칼빈의 교회 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에 관한 논평

김승곤

(성결대)

연구자는 루터가 교회 교육의 근거를 교육이라는 개념과 서로 본질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말씀의 가르침이나 말씀의 교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어 교육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루터의 교육에 관한 이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루터는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중시한 사례를 보면 역시 교회 교육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인식한 듯한 느낌이 든다.

루터는 가정을 통한 교회 교육에서 교육적인 돌봄이 일어나야 할 자리를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정이라고 보았고, 가정 교육도 '영의 나라'의 일부로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였다. 교회론에서 교육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은 루터의 교회교육의 개념에 관한 대단히 핵심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의 교회론에서 교육이 중심적 역할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보다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이 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 교육의 형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루터가 교회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첫째, 말씀의 내적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

문이다. 둘째 가정을 영의 나라의 일부로 보고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며, 가정 교육은 부모의 제사장적 말씀교육이라는 것이다. 셋째, 교육은 성인을 제외한 미성숙한 아동이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루터가 학교의 개념과 역할을 증시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학교가 교육적인 의무와 과제를 담당해야 한다 것과 '말씀의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언어 교육도 학교가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회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기관이라기 보다는 교회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개념은 '기독교학교'의 개념으로 오늘날에도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는 모든 이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루터가 주장하는 교사 역할이란 교사의 직을 '영적인 직분'으로 보고, 무엇보다 교사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다시 말해서 교사는 영적인 직분인 목사 와도 같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 높은 교사의 직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가 주장하는 교회 교육 개념은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에 이르는 내적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고,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은 가정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수행된다고 본 것은 우러로 하여금 오늘날 기독교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할 중심적인 교육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설교가 중요하고 교회교육이 중요치 않은 이유로서, '말씀'은 외적인 언어적 해석과 내적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하

다고 하고, 외적인 언어를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필요하나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교육보다는 성령의 역사 하심과 믿음이 선행 조건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교황과 같이 특별한 위치에 사람, 또는 인간들의 해석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혁자인 루터 자신의 개혁성이 반영된 듯하다. 그러므로 교회론에서 말씀선포, 즉 설교가 주요시되고, 교육은 강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청소년과 미숙한 신앙인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설교, 즉 교리문답식 설교가 필요하다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한 점을 일부 기억해야 한다.

루터가 주장한 교회교육의 실체는 어린이와 청소년, 미숙한 신앙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는데 루터는 교육은 역시 어린이를 다스린다는 개념이고, 교회교육도 미성년과 미성숙한 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의 행위로서 성숙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개념은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논평자는 연구자가 칼빈의 교육개념에 대하여 '교육'이라는 개념은 이미 교회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으로 이끌고,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하도록 돕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인간은 양육된다. 따라서 칼빈의 교회에서 교육이란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과제이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연구자가 말하였는데 이는 루터에 비하여 칼빈이 교회교육의 개념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루터의 교사관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과 나란히 없어서는

안될 직분으로 보았는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사 직분 없이 교회는 교회답게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교회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루터가 교사를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건전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유지되도록 돕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로 생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자는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에 대하여 교회란 부족하여서 스스로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견고히 설 수도 없는 인간을 돕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육기관이며, 신자의 양육이란 교회존립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삶의 양식은 하나님에 인간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과정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는데 이는 논쟁자의 의견과 일치한다.

연구자는 루터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점은 여구가자가 우리에게 칼빈이 개인교 최초의 교육목회 이론가이며 실천가였음을 증명해 주는 단서가 된다는 부분에서 보면 루터와 칼빈을 혼돈하고 있는 듯 하다.

칼빈의 교회교육 개념은 교육 목회적인 것으로서, 그는 교회가 회중 전체의 신앙생활을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교육목회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이 때 칼빈은 신자의 계속적인 신앙의 성숙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목회 전체의 과정에서 본 교육목회적인 실천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에 대하여, 루터가 교회에서의 교육 개념을 선포와 구별 한점이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

다면, 칼빈은 교육이나 선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신앙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 교육의 일환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칼빈은 교육을 인간의 책임이고, 설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구분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설교나 교육이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루터가 교육을 인간적인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복음보다는 율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칼빈은 교육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교육의 카테고리' 속에서 교회교육을 보았다는 지적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

연구자는 칼빈에게서 모든 형태의 교회 교육은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일환이며, 루터적인 교육의 한계성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칼빈에게서 교육은 교회의 핵심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현대 기독교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방법이나 평가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루터와 칼빈의 의한 교회교육의 개념이나 구조가 교육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의 전달에 있어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신학적인 차이 또한 간파해서는 안될 요인이다. 신학이 아닌 교육의 개념에 관한 상반된 두 개혁자의 이해로 말미암아 의하여 그들의 교회교육 구조가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학문 이전의 기독교교육은 신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기존의 생각은 일반화할 수 없는 편견일 수 있다는 주장은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는 모든 학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주장한 연구내용을 통하여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도가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었는지 명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연구자가 제시한 서론에서 시도하려했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개혁자의 '교회교육'개념 및 구조를 그들의 교회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기 일.
 - 2) 개혁자의 사교에 나타나는 '교회교육'의 구조를 재구성하기.
 - 3) 신학적인 교회론에 교육이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점유하는지를 해석하기.
 - 4) 두 개혁자가 실제로 제시하고 실천하였던 교회교육의 실제들의 고찰하기.
 - 5) 교회교육의 실제와 그들의 교회론 간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모색하기.
 - 6) 재구성된 두 사람의 교회교육 모델과의 공통점과 상이성이 비교하기.
 - 7) 두 개혁자 간에 존재하는 상이성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특별히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과 교육 이해의 차이를 밝히기.
- 루터와 칼빈의 교회 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루터와 칼빈의 교회 교육 개념 및 구조 비교”에 관한 논평 437

[루터와 칼빈의 교회교육에 관한 개념 및 구조 비교]

구분	루터	칼빈
교회론과 교회교육의 관	참교회는 참 사도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가르침이나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교회 교육을 인정치 않았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나누고 참교회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부족과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교육을 필요함.
가능성과 한계	말씀의 외적, 언어적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내적 명료함과 깨우침을 위해서는 교육보다는 성경의 역사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여 교육의 한계 또한 인정하였다.	부족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으로 인도되려면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어야 하는데 교회 교육이 그 기능을 담당한다.
교회교육의 개념	1. 단순히 교회 중심이라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 속에서 본격적이고 전 문적으로 내적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념 2. 교육이란 아동을 다스린다는 개념-주요대상은 미성숙한 자	1. 교회란 신앙인의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기관이며 신자 양육은 교회존립의 본질적인 근거가 된다. 2.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삶의 양식은 하나님에 인간을 교육시키는 과정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자를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임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가정관¹⁾

오덕교

(합 신 대)

구분	특	질	관
교회교육의 실	1. 미성숙한 신앙인을 대상으로 설교도 교육적인 설교가 되어 질문과 대답으로 하며 성인교육은 제외로 하며 청교도 교육은 모든 회중에서 가르치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실시	1. 교회의 존립의 근거를 교회교육을 통한 신자 양육으로 본다. 2.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협력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1. 교회의 존립의 근거를 교회교육을 통한 신자 양육으로 본다. 2.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협력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교회적 명사	가정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며 교회가 교육은 확대되어야 함	모든 신자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성화의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의 사명	모든 신자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성화의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의 사명
교사와 학생교육관	교사는 제사장과 같이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하며 학생은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자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 주는 자이며 학생은 양육 받아야 할 모든 신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자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 주는 자이며 학생은 양육 받아야 할 모든 신자
특	1. 교회 교육이라는 개념이 없다. 2. 교육의 대상은 오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며 성인은 제외된다. 3. 교회에서 교육을 통한 말씀의 이해 보다는 성령이 내적 역사를 중시한다.	1. 교회목회적인 교회 이해 2. 교육은 교회를 통한 모든 경험 3. 교육의 대상은 모든 신자 4. 목회 실천속에서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시	1. 교회목회적인 교회 이해 2. 교육은 교회를 통한 모든 경험 3. 교육의 대상은 모든 신자 4. 목회 실천속에서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시

경건한 사회는 각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질 때 가능하다. 경건한 가정이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교의 열매로 맺어진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물질을 투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했지만, 반면에 이혼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²⁾ 이는 행복이 물질과 쾌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에 기초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필자는 이를 신앙적 가치관으로 본다. 신앙은 죄로 향하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가정의 신

1)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한 것임
2) 소비자 보호원의 발표에 의하면, 1997년 한 가정이 태어나기 위한 결혼 비용이 평균적으로 3,679만원 이상 들었다. 이는 미국의 4.8 배, 일본의 3.2 배가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새 집 마련과 가구와 가전 제품 구입에 923만원, 신랑과 신부를 위한 폐물로 733만원, 예물로 715만원, 결혼 파티에 350만원이 쓰여졌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인구 1,000명 당 1.8 쌍이 이혼하였는데, 이는 1996년 신고된 혼인 건수의 19.6%에 해당된다. 총 이혼 건 수 가운데 1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비율은 44.2%로 1985년에 비해 16.4%가 증가하였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황혼에 이혼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1985년에 4.7%이던 것이 1996년에는 9.6%로 두 배나 증가하였다. 조선 일보 1998년 7월 2일.